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10월 25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 악한 때를 살아가는 지혜 >

에베소서 5:16,17 / 새찬송가 340(통일 366) 어지러운 세상 중에

1. 세상은 점점 좋아질까요 점점 악해질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의 마음이 악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4:10-12). 이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마귀와 귀신들이 발작하여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을 갈수록 악하게 만들고 세상도 점점 악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계12:12),(딤후3:1-5).

2. 세상이 악할수록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악한 때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지식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세상 지식은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함도 없고 만족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전12:12),(전1:8).

그래서 성도들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상에서 지혜라 부르는 것은 '꾀'입니다(고전3:19,20).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였으나 압살롬의 편을 들어 다윗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아닌 후새의 전략을 택하도록 하셔서 압살롬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약1:5).

3. 악한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이루는 승리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승리하는 승리입니다. 악한 때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을 죄악의 길로 끌고 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시며 삶의 현장에서 그 승리를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먼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이고 의지해야 하며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또 빌립도 성령에 이끌려 간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께 이끌려서 살게 되면 악한 때라도 매사에 승리하게 됩니다.

< 적용 & 실천 >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즉 일상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과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삶의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점점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